

2005년도 고전소설 분야 연구 동향

한길연(서울대 기초교육원)

- | |
|-------------------|
| 1. 자료의 발굴 및 정리 |
| 1.1. 새 자료의 발굴 |
| 1.2. 자료의 정리 |
| 2. 분야별 연구 개관 |
| 2.1. 장편소설 |
| 2.2. 전기소설, 풍유록, 전 |
| 2.3. 영웅소설 |
| 2.4. 판소리계 소설 |
| 2.5. 한글단편소설 |
| 3. 소설 일반론 |
| 3.1. 소설론, 소설연구론 |
| 3.2. 간행, 유통 |
| 3.3. 비교문학 |

이 글은 2005년 한 해 동안의 고전소설 분야 연구 동향을 단행본, 학위논문, 학술지논문 등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2005년 한 해만도 20여 권 이상의 단행본, 수십 편 이상의 석·박사 학위논문, 백 편 이상의 학술지논문 등 상당히 많은 연구 성과물이 산출되었다. 필자는 이런 연구 성과물들을 일별하기는 했으나 일천한 식견으로 인해 이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염려된다. 또 미처 조사하지 못하고 누락된 논의도 있을 것이기에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점 미리 널리 양해를 구한다. 다만 필자가 판단하기에 2005년 한 해 동안 고전소설 연구에서 중요한 성과라고 판단되는 연구들을 중점적으로 정리하고, 쟁점이 될 만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연구사 정리를 대신하기로 한다.

1. 자료의 발굴 및 정리

1.1. 새 자료의 발굴

2005년 한 해 동안 새로운 고전소설의 발굴 혹은 고전소설과 관련한 새로운 기록의 발굴이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 먼저 새롭게 발굴된 작품으로는, <孔方傳>(曹鳳默 作), <임화정연>(筆寫本), <춘미전>, <忠烈史傳>, <白花傳> 등을 들 수 있다.¹⁾

이 중 가전체 소설의 발굴로는, 조봉묵이 지은 한문본 <孔方傳>을 들 수 있다. 홍성남은 이 작품이 19세기 중반에 지어진 것으로 林樞의 <공방전>과 金萬鎭의 <錢神傳>·曹圭喆의 <공방전>을 이어주는 교두보 역할을 하며, 임춘의 <공방전>이 비극미를 내포한 것과는 달리 희극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장편소설의 발굴로는, 필사본 <임화정연> 72권 72책을 들 수 있다. 이 텍스트는 육당 최남선이 언급했던 139책 본은 아니지만, 기존에 존재하던 6권 6책의 구활자본과는 다른 거질의 필사본이다. 송성옥은 6권 6책의 구활자본과의 면밀한 비교 검토를 통해 72권 72책의 필사본 <임화정연>의 특징을 선명하게 밝혀내었다. 특히 그간 구활자본에서는 축약되거나 삭제되었던 부분들을 상세히 검토함으로써 <임화정연>의 전모를 밝히는 데 일조할 수 있었다.

영웅소설 및 한글단편소설의 발굴로는, <춘미전>, <충렬사전>, <백화전>을 들 수 있다. 박종익은 乙巳本 <춘미전>이, 윤리소설적 성격을 보이는 다른 이본과는 달리 윤리소설적 성격 외에 영웅소설적 성격까지 지니며,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다른 이본과는 달리 조선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밝혀내었고, 김성철은 <충렬사전>이 소설적 성취를 위해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변용하고 있는 구성적 특징 즉 역사와 허구의 교직을 통한 소설화 방식에 대해 규명하였으며, 강문중은 <백화전>이 19세기 율문체 영

1) 이외에도 고전소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고전소설에 버금가는 의미를 지닌 텍스트의 발굴이 있었다. 배연형은 李龍雨가 1949년에 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춘향가 말책>을 소개함으로써 <춘향전> 연구에 일조하였다.

웅소설로서 가사체, 판소리체 등의 문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한편, 고전소설과 관련한 새로운 자료의 발굴로는 『文通』(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에 실린 李庭綽의 언문소설 저술에 관한 기록, 『李家世稿』(李尙澈 소장)에 실린 海平尹氏의 <伯季兩門善行錄> 저술에 관한 기록, 『諺文厚生錄』(안춘근 소장)에 실린 세책본소설에 관한 기록 등을 들 수 있다.

임치균은 柳禧가 쓴 『문통』에서 이정작이 언문소설을 지은 경위를 소개하는 짚막한 기록을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기존의 <옥린몽>에 대한 원문 표기형태 및 창작시기에 대한 논란을 일축시켰다. 우선 그는 『문통』에서 언급한 언문소설이 <옥린몽>임을 밝혀낸 뒤, 이를 근거로 <옥린몽>은 원문이 언문으로 지어졌으며 그 창작시기는 1709~1714년임을 고증하였다.

필자는 全州李氏 寧海君派 가문에서 전해오는 『李家世稿』에서 이 집안의 며느리인 해평윤씨가 <백계양문선행록> 巨帙을 저술했다는 기록을 발굴하고, 『언문척목록』 등을 근거로 <백계양문선행록>이 대화소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의 대화소설 창작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었다.

정명기는 『언문후생록』 소재 소설 목록 등을 발굴하여, 고전소설이 크게 장편가문소설인 ‘길척’과 비장편가문소설인 ‘소설척’으로 구별되었던 독특한 양상을 규명하였고, 세책본 소설로 유통되던 구활자본 소설 작품들과 그 작품들을 유통시키던 세책업소를 새롭게 조명하였다. 이를 통해 세책본소설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가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자료의 발굴은 고전소설 연구를 보다 폭넓고 깊이 있게 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된다. 앞으로도 고전소설과 관련한 새로운 자료의 발굴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1.2. 자료의 정리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더불어 기존 자료의 정리 작업, 즉 고전소설을 현대어로 번역하거나 교감·주석하기도 하고 고전소설 관련 자료를 모아 정

리하기도 하는 연구 성과 또한 2005년 한 해 동안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다. <홍길동전>, <장화홍련전> 등 다수의 작품이 현대어로 번역되어 나왔고, <만복사저포기>, <재생연전> 등의 소설들이 교감·주석되어 나왔으며, 고전소설 관련 자료를 모은 『한국고소설관련자료집』 2가 출간되어 나왔다. 이러한 연구 성과물은 상당히 많기에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 가운데 박희병의 『韓國漢文小說 校合句解』는 정밀한 교감과 교합으로 이 분야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문소설을 정선하고, 이본을 교감한 바탕 위에, 표점과 주석을 더하면서, 교합본을 선보이고 있는 이 저서는, 학문의 정밀성을 위한 典範으로 그 학문적 온축과 깊이에서 여타의 학자들에게 부러움과 두려움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²⁾

특히 이 책의 서두에서 교감·주석 작업이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을 고전소설 분야에서의 ‘농사짓기’에 비유한 대목은 되새겨볼만한 부분이다. 재빠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연구가 몰리고 교감·주석 작업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외면당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꼬집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의 근저에는 교감주석학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업인 것처럼 쉽게 생각하거나 이론적 체계의 생산만을 중요시하는 학문적 풍토가 깔려 있다고 보면서, 교감주석학은 오랜 기간의 학문적 온축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지난한 작업이며, 심원한 사유나 이론 또한 정밀한 교감과 주석이 이루어진 텍스트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따끔한 일침을 놓고 있다.

한편 박희병의 연구는 그간에 이루어진 주석 및 교감 작업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그간의 교감주석본에는 심혈을 기울인 성과물도 적지 않지만 한편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쫓겨 혹은 연구자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 엉성한 상태의 연구 결과물 또한 허다하다. 질 낮은 교감주석본은 현대판 이본이 됨으로써 오히려 고전소설 연구에 또 다른 해가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박희병의 연구는 교감주석학의 전범에 가까운 치밀함을 보임으로써 이 분야의 중요성을 일깨울 뿐만 아니라 기존에 행해진 교감주석본에 대해서도 반성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는

2) 장효현, 「학문의 정밀성을 위한 典範」, 『민족문학사연구』 30, 민족문학사학회, 2006.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런데 머릿속으로는 교감·주석 연구에 대한 이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현실적으로는 실행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교감·주석 연구를 활성화시키면서도 학문적 정밀함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송성옥은 「고전소설 텍스트 연구 방법론의 현황과 과제」에서 원전 비평, 주석 연구 등에 대해 상세히 검토한 바 있는데, 이러한 논의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첫째, 논문 중심의 업적 평가에서 벗어나 교감·주석의 연구물도 업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누차 언급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실행되지 않고 있다. 학계에서 중지를 모아 교감·주석 작업의 성과물을 연구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둘째, 교감·주석 작업이 보다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질, 판형, 자형, 판각 등의 서지학적 고찰을 위한 본격적인 문헌학적 연구가 도입되어야 한다. 또 소설 목록, 모티브 사진, 용어 사전 등을 마련함으로써 교감 및 주석 작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감 및 주석 성과물에 대한 엄정한 평가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는 첫 번째 항목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부분이다. 그간 교감·주석 작업의 성과물이 업적 평가에서 제외되었던 것은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릴지는 몰라도 누구나 시작하기만 하면 성과물을 낼 수 있는 분야라 생각하여 이를 굳이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측면이 적지 않다. 학술지 등에서 연구 논문을 특정절차에 따라 엄밀히 평가하여 게재 유무를 결정하듯, 교감 및 주석 작업에 대해서도 엄정한 평가 제도를 마련하여 간행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될 때 교감·주석 작업이 보다 엄밀히 행해질 뿐만 아니라 여타의 논문과 마찬가지로 연구 성과물로서의 가치 또한 확실히 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여러 학술지원기관에서 교감·주석 대상을 선정하는 평가 기준으로

질적인 측면을 중시하고 연구 기간도 좀 더 장기화할 필요가 있다. 교감 및 주석 작업은 대부분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의 기관에서 연구비를 받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러한 기관에서 연구대상을 선정하는 평가의 잣대가 주로 양적인 측면에 놓이다 보니 대개의 연구자들이 무리하게 많은 양을 계획하여 2~3년의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는 시간에 쫓겨 부득이하게 실수가 나오기 쉽다. 그렇다고 술한 연구자들이 연구비를 받지 않고 교감·주석 작업을 할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것도 아니다. 대부분 박사과정 졸업 이후에 별다른 연고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연구비를 받고 이러한 연구를 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지원기관에서는 양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의 평가 기준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기간에 많은 업적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여유를 두고 완성도 있는 성과물이 산출될 수 있도록 기간을 좀 더 장기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들이 실행된다면 교감·주석학에 대한 연구가 진일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연구자의 학문적 도덕성과 열정만을 강조하기에는 이 분야에 대한 제반 여건이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여건들이 갖추어졌을 때, 고전소설 자료 전반에 관한 정밀하고 체계적인 정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2. 분야별 연구 개관

2.1. 장편소설

2005년도에는 장편소설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먼저 박사논문으로 제출된 것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정길수의 「17세기 長篇小說의 형성 경로와 장편화 방법」에서는 <구운몽>, <창선감의록>, <소현성록> 세 작품을 대상으로 17세기 장편소설 형성의 배경과 경로를 살피고, ‘장편화’의 실제 양상과 그 방법을 규명한 뒤, 장편소설 형성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 특히 전기소설, 중국소설 등과의 꼼꼼한 비교 검토를 통해 장편

소설의 형성 경로를 면밀히 따지고, 17세기 후반의 사회경제사적 배경을 심층적으로 재구하여 장편소설이 최상층의 ‘문화사치품’으로서 상층의 이데올로기를 유포하는 수단이 되었음을 상세히 검토하고 있는 논의가 돋보인다.

필자의 「대하소설의 의식성향과 향유층위에 관한 연구」에서는 그간 대하소설이 주로 상층 사대부 계층의 의식을 형상화한 것으로 논의되었던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유사한 내용을 지닌 <창란호연록>, <옥원재합기연>, <완월회맹연> 세 작품을 비교 검토하여 대하소설에는 閭巷人層의 변화하는 세태를 담아낸 작품, 上層 失勢層의 방황과 고심을 담아낸 작품, 上層 執權層의 안정과 자부를 담아낸 작품의 세 층위가 존재함을 밝혀내었다. 특히 18세기 당대에 한정해서 논한다면, 대하소설은 閭巷人層의 변화하는 세태를 담아낸 작품, 京華 失勢 士族의 방황과 고심을 담아낸 작품, 京華 執權 士族의 안정과 자부를 담아낸 작품 세 층위로 나눌 수 있음을 검토하였다. 이는 기존과는 다른 대하소설의 의식성향과 향유층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탁원정의 「17세기 가정소설의 공간 연구」에서는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을 대상으로 공간이 중요한 구성요소라는 전제 하에 본격적인 공간론을 시도하였다. 집 안과 집 밖으로의 순환적 이동을 통해 집 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집을 일구어가는 공간의 기본 틀을 독자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이들 작품은, 후대의 정통 가정소설류만이 아니라 18세기 이후의 가문소설이나 영웅소설, 19세기 상층 지식인 창작의 장편소설에 이르기까지 거시적인 공간 설정과 그 구도는 물론 세부적인 국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토하였다. 공간이라는 특정 주제를 치밀하게 따져 그 의미를 조목조목 밝히고 있는 점은 높이 살만하다. 다만 다루고 있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아쉽다. 적어도 동시대에 창작된 <소현성록>만이라도 함께 검토했다면, 좀 더 균형 있는 논의를 펼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여러 학술지에 실린 소논문을 살펴보면, 이 중 주목을 끄는 것은 한국고전연구학회에서 진행한 <소현성록>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이다. 이 학회에서는 <소현성록> 특집을 마련하여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데,

<소현성록> 연작의 남성 인물 연구」(정선희), 「<소현성록>의 公主婚에 나타난 사회적 의미」(박영희), <소현성록>의 ‘석파’ 연구」(서경희) 등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최근 고전소설에서 논쟁의 부재가 또 다른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논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전소설과 일상’, ‘고전소설과 여성’ 등 주제별로 접근하는 것이 흔한 경우인데, 한국고전연구학회에서는 작품별로 이를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의미 있는 성과물들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논의방식 또한 하나의 작품에만 매몰될 경우 또 다른 폐해를 낳을 수 있기에 논쟁을 활성화할 완전한 해답이 될 수는 없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의견을 모아나가고 쟁점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의 소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장편소설에 관한 주요한 소논문들로, <유효공선행록>, <엄씨효문청행록>, <보은기우록> 등의 별열소설을 바탕으로 효 구현 양상을 면밀히 검토한 논의(조광국), 국내에 유입되던 단계에서는 ‘史書’로 인식되었으나 17세기 중반 이후 역사와의 변별이 나타나게 되는 연의소설에 대한 인식 변화 양상이 장편소설의 형성이나 창작 방식과 밀접히 관련됨을 밝힌 논의(진성운), 유교적 입신양명을 중시하는 지배 담론의 기저에 여성인물의 자매애적 친밀감, 남성적 권위의 희화화 등의 저항 담론들이 존재함으로써 <구운몽>이 중층적 담론 구조를 지님을 분석한 논의(김문희), 남성 위주의 서사 진행 속에서 여성의 효의식이 제도적이고 규범적인 차원에서 시부모에게 한정되어 나타나는 <유효공선행록>과, 여성의 입장에 대한 섬세한 배려가 두드러지면서 여성의 효의식이 자연적이고 보편적인 감정에서 친정 부모에게까지도 나타나는 <옥원재합기연>을 비교 검토한 논의(이지하), 시간과 공간의 分等に 따라 <완월회맹연>을 섬세하게 고찰함으로써 이 작품에서 일상적 삶의 모습이 꺾진하게 형상화되고 있음을 밝힌 논의(이지영), 여성들의 다양한 詩作 활동을 형상화하고 있는 <명행정의록>에서는 여성의 재능에 대한 호의적 관점이 반영되어 있음을 규명한 논의(서정민), <옥루몽>에서의 性愛 표현은 서사의 활성화와 개연성의 강조를 위해 사용되었지만, 그 근저에는 당대 사회의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은폐되어 나타남으로써 결과적으로 남성 중심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게 되었다는

논의(유광수), <화씨팔대록>에서의 팔대록 구조를 통한 가문 극대화 구조, 충과 용서를 중시하는 논리 구조 등의 작품 내적 특징과 <소현성록>, <옥환방>, <명주기봉> 등의 타 작품과의 연계성을 규명한 논의(차충환)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최근 <한조삼성기봉>, <청백운>, <위씨오세삼난현행록> 등 장서각 낙선재본 고전소설에 관한 연구들을 모아 책으로 엮어냈는데(임치균 외), 낙선재본 소설의 특이한 면모들을 한 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어 요긴하다.

2.2. 전기소설, 몽유록, 전

전기소설, 몽유록, 전에 관한 연구 성과물로는 기존에 진행된 논의들을 하나로 모아 저서로 출간한 경우가 많았다. 정환국의 『초기 소설사의 형성 과정과 그 저변』, 유정일의 『<기재기이> 연구』, 김정녀의 『조선 후기 몽유록의 구도와 전개』, 박수밀의 『박지원의 미의식과 문예이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환국은 『금오신화』와 <설공찬전>을 중심으로 초기 소설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부터, 17세기 이후 <최척천> 등에서 서사가 확대되고, <왕경룡전> 등에서 내용이 속화되는 과정까지를 규명함으로써, 소설사의 始原뿐만 아니라 이후의 변천양상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유정일은 그간 한국 전기소설사에서 『금오신화』에 비해 『기재기이』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진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비현실적 내용을 형상화한 『금오신화』와는 달리 현실적 세계로의 경사를 보이는 『기재기이』는 17세기 세정 전기소설로 넘어가는 시기에 전기성의 변화과정에서의 완충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김정녀는 문인 지식인의 고뇌와 울분을 표출한 조선전기의 몽유록과는 달리, 조선 후기 몽유록은 17세기의 중·후반에 향유층의 확대, 장편 국문소설과 한문소설의 출현, 방각본의 유통 등으로 인한 지각변동을 겪으면서 대중적 인물형상, 통속적 서사기법 등을 선보임으로써 이전의 몽유록과는 상

당한 질적 차이를 보임을 밝혀내었고, 박수밀은 박지원의 사유 체계, 심미 의식, 문예 이론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박지원의 문예사적 위상을 면밀히 조명하였다.

이밖에 주요한 소논문들로, 釋 息影菴의 <丁侍者傳>, 申光漢의 <書齋夜會錄>, 林梯의 <愁城誌>, 鄭泰齊의 <天君演義> 등을 통해 고전소설의 형성기에 寓言이 기여하고 있는 자리에 대해 조명한 논의(장효현), <이생규장전>의 밀회 장면, 즉 窺牆과 踰牆 대목에 나타나는 환상성을 조명하고 이러한 환상성에 기반한 가상적 구조가 지니는 현실적 의미에 대해 탐구한 논의(박일용), ‘奇’가 창출되는 방식에 따라 초현실적 기이, 擬似的 기이, 문체적 기이로 변별하여 전기소설의 서술 양상의 특징을 고찰한 논의(김문희), <취유부벽정기>, <남염부주지>, <최생우진기> 등 초기한문소설을 중심으로 작품의 궁극적 주제의식을 우언의 구조에서 살펴본 논의(문범두), <주생전>의 주요인물인 ‘배도’를 중심으로 이 작품이 현실적인 인물 형상을 통해 통속적 애정전기소설을 구현하고 있음을 밝힌 논의(지연숙), 박지원이 <호질>과 <허생전>에서 金聖嘆의 서사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미학적 효과를 산출하였다는 논의(이승수), 17~18세기 중엽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芝峯傳>은 효종 조 궁녀 차출과 왕권 강화 등의 정치 현실을 배경으로 구상된 소설로, 남성 지배층의 담론을 폭로하고 있음을 조명한 논의(임수현) 등을 들 수 있다.

2.3. 영웅소설

영웅소설에 관한 연구 성과물 중 박사논문으로는, 조은희의 고전 여성 영웅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에 연구된 다양한 여성영웅소설들을 총망라하여 다루고 있는데, 그 형성 배경을 면밀히 밝히고 ‘현실 타협형’, ‘현실 도전형’, ‘현실 초월형’ 등으로 유형 분류한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을 통해 이들 소설에서 추출해낸 지향의식으로 혼사장애의 극복, 양성평등의 추구, 공적 영역으로의 진출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는 여성영웅소설에 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한데 모아 놓은 것일 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다음으로 영웅소설에 대한 소논문을 살펴보면, 주목할 만한 논의로 정병설의 18·19세기 일본인의 조선소설 공부와 조선관-〈최충전〉과 〈임경업전〉을 중심으로」를 들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18·19세기 〈최충전〉과 〈임경업전〉이 雨森芳洲 이후에 일본인의 조선 또는 조선어 공부에 중요한 텍스트가 되었음을 검토하고 있다. 이 논의는 기존의 영웅소설 연구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각으로 이들 소설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가장 민중적이고 대중적인 소설이라 할 수 있는 영웅소설은, 단지 하층에서 흥미 위주로 읽힌 통속적 소설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정되지 않고, 한 나라의 민족성 혹은 대외관까지도 엿볼 수 있게 하는 자료로서의 활용가치를 지녔음을 확인케 한다.

한편, 김병권은 <소대성전> 창작 원리의 불교사상적 연구, <소대성전> 창작 원천의 易象姓名學的 연구, <소대성전> 창작의 數理姓名學的 연구, 등 <소대성전>의 창작 원리를 규명하는 세 개의 논문을 연달아 내놓았다. 보시와 복덕의 인과관계는 『금강경』의 四句偈의 내용과 부합함으로써 불교사상과 관련되며, 소대성이라는 작명에서부터 인물, 사건 등에 이르기까지 <소현성록>의 구성요소들이 『주역』의 괘에 대응됨으로써 역상성명학 혹은 수리성명학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혀내었다. 이 중 불교사상과의 관련성은 단지 <소대성전>에만 국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소설 창작 원리를 서사문학이 아닌 여타의 다양한 사상과의 연관 속에서 규명하려 한 독특한 시도가 돋보이는 논의들이다.

2.4. 판소리계 소설

판소리계 소설 가운데 주목할 만한 논의로는 김종철, 김현주의 논의를 들 수 있다. 김종철의 정전으로서의 <춘향전>의 성격」에서는 군집체로서의 『춘향전』은 정전이지만 개별 이본으로서의 <춘향전>은 끊임없이 고정된 정전이길 거부해왔는데, 이러한 점이 『춘향전』을 부동의 고전이자 정전

이면서 동시에 아니게 만든 까닭이라고 보았다. 특히 오늘날에도 『춘향전』을 “과거형의 작품, 떠받들어야 하는 작품”으로만 관념화시킬 것이 아니라, 조선후기의 독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재해석과 개작을 통해 그 생성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는 정전에 대한 인식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논문이라 할 수 있다. ‘고정·불변하는’ 정전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성·변모하는’ 정전도 가능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보게 한다.

김현주의 문장체 고소설과 판소리 서사체의 언어조직방식-〈구운몽〉과 〈열녀춘향수절가〉를 중심으로 한 시론적 비교 연구」에서는 어휘의 선택 방식, 통사적 결합 방식, 담론체계의 인유 방식의 세 가지 측면에서 <구운몽〉과 <열녀춘향수절가〉를 비교 검토하여 문장체 고소설과 판소리 서사체의 언어조직방식의 차이점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문장체 고소설은 귀족적이고 예법적인 어휘를 중심으로 수직적인 유추에 의한 관념적이고 역사적인 가치를 담아냄으로써 지배 이데올로기를 확산 유포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반면, 판소리 서사체는 일상적이고 실물적인 어휘를 중심으로 수평적인 연상에 의해 평등주의적 현실인식의 담론체계를 수용함으로써 지배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두 장르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쉽게 가정해 볼 수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언어조직방식을 통해 이를 면밀하게 밝혀내는 정밀함이 돋보인다.

이 밖에 정선희는 기존에 <춘향신설>의 작가인 향촌 사족 출신의 목태림의 생애와 저술활동을 세밀히 검토하여 19세기 전반기를 살다간 그의 문학적 특성을 면밀히 밝힌 바 있는데, 이를 다듬어 『19세기 소설작가 목태림 문학연구』라는 책으로 출간하였다.

2.5. 한글단편소설

한글단편소설에 관한 박사논문으로는, 계모형 고소설을 중심으로 우리 문학사에서 구활자본 고소설의 위치를 규명한 김현지의 구활자본 계모형 고소설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갈등구조, 수용층, 유통구조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구활자본 고소설이 근대문학이 형성되고 있던 시

대의 대중독서물로서의 한계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당시대의 대중문화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사료적 가치를 지니며 치열한 자기 변화과정을 통해 근대 문학에도 영향을 주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주요한 소논문으로, <장화홍련전>은 전처집단의 후처집단에 대한 피해 의식을 冤鬼의 신원 모티프를 통해 환상적으로 서사화하고 있는 동시에, 가부장제 사회에서 피해자로서의 동질성을 지닌 여성들 공통의 불안 심리를 담아내고 있다는 논의(이정원), <장화홍련전>과 <김인향전>은 계모의 진실 지식의 모해와 관련하여 여성의 정절과 죽음 및 환생이라는 동일한 모티프를 취하고 있지만, <장화홍련전>에서는 보수성과 관념성이 주조를 이루는데 반해 <김인향전>에서는 낭만성과 현실성이 두드러짐을 밝힌 논의(이금희), <두껍전>에서 두꺼비가 속한 집단과 월성이 속한 집단 간의 차별을 지양하고 평등을 지향하게 하는 인식의 각성을 촉구하는 방법의 하나로 신화적 사고체계가 수용되었음을 규명한 논의(김나영), <금수회의록>이 유교적 전통 사상과 기독교 사상의 이중적 영향 하에 있다는 기존 논의와는 달리, 기독교의 기본 교리와 어긋나는 부분이 많으며 오히려 유가의 천일합일 사상과 합치하는 부분이 많음을 조명한 논의(홍기정) 등이 있다.

3. 소설 일반론

3.1. 소설론, 소설연구론

조현우는 한국 고전서사의 역사기술적 허구성 연구에서 가전체와 몽유록 등의 고전소설이 儒家의 正名論 및 歷史體用의 역사 이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허구적 서사임을 밝히고, 이러한 텍스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역사기술적 허구성(historiographic fictionality)’이란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고전소설에서의 허구 개념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 지금까지 사용해 온 허구 개념은 서구적인 허구 개념에 가깝고 유가적 사유는 허구 내지 소설과

는 ‘적대적인’ 관계로만 인식되어 왔으나, 동 양적 허구 서사 형상에는 유가적 기반이 깔려 있음을 밝혀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로 정명론에 바탕을 둔 ‘-다움’의 철학에 기반하여 ‘여기/읽기’를 통한 새로운 허구성 이해가 가능하고, 春秋筆法·尙古主義·鑑古戒今 등 유가적 역사 이해의 틀이 서사의 형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사실과 典故는 서사 외적 구성 요소가 아니라 인물과 스토리의 구성에서 필수적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서구 중심의 서사학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고유의 서사학을 정립하는 데 소중한 논의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나온 『동아시아 서사학의 전통과 근대』(임형택 외)라는 저서 또한 주목할 만하다. 여기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의 서사물을 대상으로 동아시아 서사학 일반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우리의 고전소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넓히면서도 서양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 동아시아만의 서사적 특징을 확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근자에 동양소설이 서양소설과 다른 것에 대해 단순히 동양소설의 저열함의 소치가 아니라 동양적 서사의 독특함으로 인식함으로써 점차 서양에 대한 열등의식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제는 동양적 서사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찬찬히 짚어볼 때이다. 상기한 두 성과들은 이러한 연구의 서두를 본격적으로 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할 수 있다. 특히 그간 고전소설 연구에서 중심이 될 만한 논쟁의 부재가 누차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는데, 동아시아 서사학의 특징, 그 속에서도 한국적 서사학의 특징을 찾아내는 작업이 앞으로 고전소설의 논쟁의 중심에 놓여진다면 많은 생산적인 논의들이 전개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한편, 『한국고전소설의 창작방법 연구』(김광순 외)에서는 기존에 논의되어 온 고전소설 창작방법 논의들을 다듬고 체계화하여 한 자리에 모아 놓고 있다. “(고전소설) 창작 방법의 추이를 조망하게 하는 안내서이기도 하고, 창작방법과 관련된 쟁점을 확인하게 하는 논쟁서이기도 하다”는 서두에서의 지적대로, 이를 통해 고전소설 창작방법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이에 기반하여 고전소설에 대한 논쟁점이 마련됨으로써 이 분야의 연구가 활성화

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한국 고전소설의 세계』(이상택 외)라는 충실한 고전소설 개론서가 출간되기도 하였다. 한국 고전소설의 개념과 특질에서부터 시작하여 한국 고전소설의 발생, 하위 장르와 유형, 작자와 독자, 주제 및 세계관, 모티브와 구성 원리, 세계관, 인접 장르와의 관련, 그 현대적 의의에 이르기까지 고전소설 전반에 관한 심도 있으면서도 명쾌한 논의로 정리되어 있는 이 개론서는, 고전소설을 공부하는 초학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연구자들에게도 고전소설 전반을 새롭게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많은 시사점을 주리라 생각한다.

3.2. 간행, 유통

고전소설의 간행에 관한 주요한 논의로는, 류준경의 「達板 坊刻本 연구」를 들 수 있다. 대구지역에서 방각된 달판 방각본의 간행서포와 출판현황을 본격적으로 검토한 이 논문에서는 대구지역의 상업적 출판에는 전통적인 서적을 간행한 ‘재전당서포’와 선구적인 출판운동을 진행했던 ‘광문사’ 등의 간행서포 등이 주된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밝히고, 여기에서 방각된 소설류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기존의 방각본 연구가 주로 경판, 완판 등에 한정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달판의 존재를 선명하게 부각시킴으로써, 고전소설의 방각 양상을 온전히 살펴볼 수 있게 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고전소설의 유통에 관한 주요한 논의로는, 정병설의 조선 후기 한글소설의 성장과 유통』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조태역(1675~1728)이 쓴 『諺書西周演義跋』 등 다양한 근거를 통해 세책소설의 출현 시기를 1710년 경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방각소설의 출현 시기 역시 이 무렵으로 보고 있다. 또 조선 후기 시중에 유통되던 한글소설의 양을 가늠하였는데, 18세기 혹은 19세기 초의 성행기에 적어도 수십만 이상의 한글 소설이 전국에 유통되고 있었다는 결과를 이끌어 냄으로써 한글향유공동체의 저변이 상당히 넓었음을 검토하고 있다. 이 논문은 종전과는 달리 세책과 방각의 출현 시기에 대

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면서 한글향유공동체의 구체적인 실상을 밝혀내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이창헌은 간행, 유통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을 모아 『이야기문학 연구』라는 책으로 출간하였다. 이 책에서는 <삼설기>, <쌍주기연>, <조용전> 등의 판본의 변모 양상에서부터 20세기 초 방각소설의 변모 양상에 이르기까지 판본의 변모 양상을 면밀히 규명하는 한편, 소설책의 書體, 표기형식, 유통방식 등에 대한 세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고전소설의 간행, 유통 등에 관한 논의들을 한자리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3.3. 비교문학

비교문학 논의 가운데 주목할 만한 연구로는 조선시대 대하소설과 청대 탄사소설을 비교한 이지영의 논의와, 한·중 고전문학 속의 여성 이미지를 비교한 남은경의 논의를 들 수 있다. 이지영은 조선시대 대하소설과 <재생연전> 등을 비교하여 대하소설의 어휘가 한문에 비해 일상어 즉 구어에 가깝고 탄사소설의 어휘도 지방의 방언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언이나 백화에 비해 구어에 가깝다는 유사점을 찾아낸 뒤, 이는 조선시대 대하소설과 청대 탄사소설의 주향유층이 모두 상층여성이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이들 상층 여성들이 구술적 전통에 가까우면서도 하층과는 차별되는 기록문학에 심취함으로써, 대하소설과 탄사소설 두 양식은 비슷한 발전 경로를 보이게 된 것이라 규명하였다.

남은경은 한·중 고전소설 중 여협객전을 비교하여 중국의 여성 협객은 뛰어난 육체적 능력과 솔직한 개인감정의 표현, 과감한 행동들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해질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데 반해 한국의 여성협객은 그 행동의 끝이 유교적 이데올로기인 충, 효, 열로 귀결되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을 밝혀낸 뒤, 이는 유교 이외에도 도교, 불교 등 보다 자유로운 사유 속에 있었던 중국과 유교적 영향이 강했던 한국의 사상적 전통의 차이점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이 두 논문은 주로 여성을 매개로 중국과 한국의 소

설을 비교 검토하고 있는데, 단순히 표면적인 유사점 혹은 차이점의 규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同異의 원인까지 심층적으로 밝혀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비교 연구의 범주에 넣어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남·북한의 연구경향 비교가 있다.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고전소설의 비교 연구의 범주에는 단지 한국의 소설과 여타 국가와의 소설에 대한 비교 연구뿐만 아니라, 남한과 북한의 소설에 대한 연구경향까지도 비교 검토해야 하는 어쩔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2005년도에 남·북한에서의 고소설 연구경향을 비교 분석하는 논의 가운데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논문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김현양은 「북한의 17세기 소설사 서술의 몇 가지 문제」라는 논문에서, 1991~1996년에 간행된 『조선문학사』 4권에 서술되어 있는 ‘17세기 소설사’ 부분을 대상으로 북한에서의 17세기 소설사의 지형도와 작품의 선택·배치·평가 양상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 <사씨남정기>에서 사정옥을 인민의 품성을 지닌 여성으로 재탄생시키고 있는 대목 등을 통해 볼 때, 『조선문학사』의 17세기 소설사 부분은 무리한 배치, 의도적 오독, 과잉 해석 등 서술 양상에 있어 문제가 있음이 포착되며, 이는 주체사상을 이상화하고자 하는 강렬한 민족족주의적 서술시각이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원수 또한 남북한 <사씨남정기> 연구의 경과와 전망이라는 논문을 통해 남·북한의 고소설의 접근 시각이나 태도, 작품 해석과 평가 등에서 체제와 이념의 차이만큼이나 큰 편차가 있음을 밝혀내었다. 그 근거로 <사씨남정기>에 대해 남한 학계에서는 축첩제나 가부장제의 질곡, 가문주의의 이념, 욕망과 선악의 문제 등을 주로 읽어내고 있는 반면, 북한 학계에서는 축첩제나 가부장제의 질곡을 넘어 봉건 유교이념의 모순성, 양반계급의 도덕적 타락상, 봉건 지배층의 부패상 등을 읽어내는 데 치중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 남한 학계가 작품론, 유형론, 이본 연구 등으로 관심의 폭을 넓히며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해 온 반면, 북한 학계는 작품론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사회주의 문예이론 및 주체적 문예사상의 틀 안에서만 논의를 진행해 왔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왜곡된 서술시각의 문제점만을 지적하는 김현양과 달리, 이원수는 좀 더 냉정한 시각에서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문학은 무엇인가’라는 보다 근원적인 물음과 맞물려 있어 어느 한 쪽만을 일방적으로 옳다 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작품 해석이나 평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쟁점의 해결에 앞서 문학을 보는 기본 관점부터 조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논의하였다. 특히 남·북한의 이러한 시각 차이는 신념이나 가치관에 관계되는 일이지 이견을 조정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대비하여 온전한 민족문학 연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편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은, 남·북한 간에 연구의 비교가 이루어져야 하는 비극적 현실과 더불어 그럼에도 남·북한 간의 고전소설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일정 정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통일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상기 논의의 지적대로, 일단 남·북한 학계 간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이러한 편차를 좁혀나가는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편차를 좁히기 어렵다면, 현재의 상황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작품에 대해 남·북한이 다른 입장을 견지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다양한 시각에서의 작품 분석을 통해 오히려 생산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2005년 고전소설 연구 동향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볼 때 앞으로 고전소설 연구자에게 요청되는 덕목은 미세한 부분까지도 꼼꼼히 따지는 정밀함과 더불어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폭넓은 시야라 할 수 있다. 이는 비단 고전소설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 분야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근래에 미시적인 연구가 진행되다 보니 국소적인 부분에 매몰되어 큰 흐름을 놓치고 미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선학들에 의해 거시적 시각의 틀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기에 미시적 연구는 기존의 거시적 틀을 다시 확인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그치기 쉬웠다. 그러나 미시적 연구는 찬찬한 논의를 토대로 오히려 거시적 틀을 새롭게 다듬고 수정해가는 데까지 나갈 수

있어야 하겠다. 정밀함과 통찰력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것이 현재 고전소설을 연구하는 우리들에게 놓인 몫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권순궁, 『고전소설의 풍자와 미학』, 박이정, 2005.
 김광순 외, 『한국고소설의 창작방법 연구 : 유형』, 새문사, 2005.
 김정녀, 『조선후기 풍유록의 구도와 전개』, 보고사, 2005.
 김종근, 『남여애정결연서사』, 박이정, 2005.
 김지용, 『연암 박지원의 이상과 그 문학』, 명문당, 2005.
 한국우언문학회 편, 『동아시아 우언문학 비교론』, 집문당, 2005.
 박상란, 『여성과 고소설, 그리고 문학사』, 한국학술정보, 2005.
 박수밀, 『박지원의 미의식과 문예이론』, 태학사, 2005.
 손대오, 『한국 고전문학의 의식지향』, 국학자료원, 2005.
 신병주, 『고전소설 속 역사여행』, 돌베개, 2005.
 신선희, 『우리고전다시쓰기 : 고전서사의 현대적 계승과 장르적 변용』, 삼영사, 2005.
 유정일, 『기계기이 연구』, 경인문화사, 2005.
 이상택 외, 『한국 고전소설의 세계』, 돌베개, 2005.
 이창현, 『이야기 문학 연구』, 보고사, 2005.
 임치균 외, 『장서각 낙선재본 고전소설 연구』, 태학사, 2005.
 임형택 외, 『동아시아 서사학의 전통과 근대』,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5.
 ———, 『옛 노래, 옛 사람들의 내면풍경』, 소명출판, 2005.
 정길수, 『한국 고전 장편소설의 형성 과정』, 돌베개, 2005.
 정준식, 『한국 노비서사의 논리와 미학』, 월인, 2005.
 정환국, 『초기소설사의 형성과정과 그 저변』, 소명출판, 2005.
 정선희, 『(19세기 소설작가)목태립 문학연구』, 보고사, 2005.
 최정동, 『연암 박지원과 열하를 가다』, 푸른역사, 2005.
 한국고소설학회, 『고전소설 교육의 과제와 방향』, 월인, 2005.
 한국고전연구학회, 『고전소설 텍스트 읽기』, 보고사, 2005.

2. 학위논문

<박사학위논문>

- 김현지, 「구활자본 계모형 고소설 연구」, 성균관대 박사, 2005.

이명현, 「古典小說에 나타난 天觀念 研究」, 중앙대 박사, 2005.

정길수, 「17세기 長篇小說의 형성 경로와 장편화 방법」, 서울대 박사, 2005.

조은희, 「고전 여성영웅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 대구대 박사, 2005.

조현우, 「한국 고전서사의 역사기술적 허구성 연구 - 가전체와 몽유록을 중심으로」, 서강대 박사, 2005.

탁원정, 「17세기 가정소설의 공간 연구 -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 을 대상으로」, 이화여대 박사, 2005.

한길연, 「대하소설의 의식성향과 향유층위에 관한 연구 - <창란호연록>, <옥원재합기연>, <완월회맹연>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 2005.

<석사학위논문>

강문식, 「<심정전> 이본을 통한 고전소설 교육방법 연구」, 한양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강선실, 「<朴氏傳>의 女性意識과 教育的 價値」, 중앙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강은실, 「조선후기 동물우화소설 <玉浦洞奇玩錄> 연구」, 영남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강재홍, 이본 생성 원리를 활용한 <홍부전> 교수·학습 방안 연구, 홍익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권은경, 「<구운몽>의 환상적 형식과 의미」, 서강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구제찬, 「<金仁香傳>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김경희, 「고전소설을 활용한 온라인게임의 서사화 방안 : <明珠寶月聘>을 중심으로」, 한국외대 대학원 석사, 2005.

김경희, 「燕巖 朴趾源 문학의 교육 방안 연구 : 漢文小說 <熱河日記>를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김광은, 「고등학교 고전소설 교육의 효율적 지도 방안 : 문학 교과서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김민주, 「<安憑夢遊錄>의 서사적 전통과 의미」, 부산대 석사, 2005.

김세경, 「고소설에 나타나는 기녀육망연구 - <동선기>, <유록전>, <옥루몽>을 중심으로」, 서강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김소은, 「문학교과서 제재로서의 <주생전>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김일동, 「<班珥錫傳> 研究」, 중앙대 대학원 석사, 2005.

김윤옥, 「고전 서사문학의 '꿈' 모티프 연구」, 서강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김주현, 「한국 고전 소설에 나타난 비극적 서정성 연구 : <주생전>, <위경천전>, <운영전> 중심으로」, 신라대 대학원 석사, 2005.

김지현, 「협동학습을 활용한 고전 소설의 효율적 지도 방안 연구」, 신라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김태은, 「韓國文學에 나타난 諧謔美의 樣相 研究 : 辭說時調와 古典小說을 中心으로」, 중앙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김혜운, 「<홍길동전>의 학년별 교수·학습 모형」,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5.

김효실, 「고소설에 나타난 형제갈등 연구 - <창선감의록>과 <적성의전>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 2005.

김효진,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중학교 고전소설 교수 - 학습 방법 연구 : 제7차 중학교 교과서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신라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당소연, 「고전소설교육방안 연구 : <춘향전>을 중심으로」, 국민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박수진, 전기소설의 학습자 중심교육방안연구 : 금오신화의 환상성을 이끌어내며」,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박원석, 「패러디를 통한 고전 소설 지도방안 연구 : '춘향전'의 현대적 각색과 수용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박윤정, 「蘇氏傳에 나타난 여성 의식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5.

방정민, 「고전소설의 창의적 수용방안연구 : 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 이진사전을 중심으로」, 아주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배경석, 「작품재창조를 통한 문학교육 방법 연구」,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백녹희, 「고등학교 고전소설 교육 연구」, 단국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배미화, 「웹을 활용한 고전소설 교육방법 모색」, 안동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백종현, 「<鼠大州傳>과 <鼠同知傳>의 비교 연구」, 영남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배한렬, 「李鈺의 傳에 대한 研究 -作家 意識을 중심으로-」, 영남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변해경, 「<사씨남정기>의 관음사상적 연구」,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선혜진, 「<想思洞記>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 2005.

송혜민, 「구성주의를 적용한 고전소설 지도방안 : <토끼전>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안정민, 「중학교 고전소설의 교수-학습 방안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안희라, 「<매화전>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오상현, 「고등학교 고전문학 교육의 현황과 개선방향 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 석사, 2005.
- 오현숙, <심청> 문화콘텐츠로의 재생산을 위한 사례 연구, 중앙대 예술대학원 석사, 2005.
- 유영경, 「서사문학을 활용한 독서치료 연구」, 영남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 윤은중, 「교육연극을 통한 고전문학 교육 방법 연구 : <홍길동전>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5.
- 이상빈, 18세기 고전소설에 나타난 표기법 고찰 : <쥬봉전>, <열여춘향수절가>, <홍길동전>을 중심으로, 공주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 이승후, 「<월하선전>과 <이진사전>에 나타난 기녀의 주체성 비교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 2005.
- 이은봉, 「<주생전>과 <운영전>의 비극적 성격과 소설사적 의의」,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 이철진, 「고전소설과 인성교육 :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어 중심으로」, 충남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 이현경, 「<홍길동전> 교수·학습 방안 연구 - 구성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영남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 이혜근, 「<홍계월전> 연구」, 영남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 임용석, 「<허생전> 학습지도 방안 - 직소 협동학습 모형 적용을 중심으로」, 영남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 장유진, 「학습자 중심의 고전소설 교과서 구성 방안 연구 : <운영전>을 중심으로」, 홍익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 전소정, 「<홍길동전>의 학습자 중심 교육 방안 연구」, 서강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 정한진, 「가정소설에 나타난 가장의 역할과 기능 : 가정의 갈등해결양상을 중심으로」, 중앙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 정향숙, 「<사씨남정기>의 갈등구조와 인물의 성격」, 순천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 조경민, 「고전소설 지도 방안 연구 : 제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어 상/하를 대상으로」,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 조지영, 「<인현왕후전>과 <사씨남정기>의 대비연구 : 주인공의 인간상을 중심으로」, 안동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 주쌍희, 「중학교 고전 소설 지도 방안 연구 : <박씨전>을 대상으로」, 부경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 진빙빙, 「韓中 諷刺小說의 比較研究 : <許生傳>·<兩班傳>과 <儒林外史>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 2005.
- 최상원, 「<구운몽>의 속임수 모티프 연구」, 서강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 최수현, 「<報恩奇遇錄>의 구성과 갈등구조 연구」, 이화여대 석사, 2005.
- 최운식, 「<芙蓉의 相思曲>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 최은아, 「학습자 활동 중심의 고전소설 교육방안 : <춘향전>을 중심으로」,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 최진영, 「<운영전>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 최태진, 「구활자본 시대의 애정소설 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 하영희, 「협동학습을 통한 <토끼전>의 교수·학습 방안 연구」, 서울시립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 한수정,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고전소설 유형론과 작품 해석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 傳奇小說과 軍談所說을 중심으로」, 강원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 한승대, 「과정 중심 고소설 읽기 활동 방안 연구」, 한국교육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 현수문, 「<玄壽文傳>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 홍미숙, 「과정중심의 고전소설 독서교육방안 : <박씨전>을 중심으로」, 전북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 황태문, 「<사씨남정기> 교육론」, 전북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 _____, 「고등학교 고전 소설 교육의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 제 7차 교육과정 국어(하)의 <춘향전>을 중심으로」, 연 세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5.

3. 학술지논문

- 강문중, 「<白花傳> 연구 - 영웅소설의 율문제 수용양상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20, 한국고소설학회, 2005.
- 강진옥, 고전 서사문학에 나타난 가족과 여성의 존재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5.
- 경일남, 고전소설의 동요 활용과 그 의미, 『한국언어문학』 55, 한국언어문학회, 2005.
- 권혁래, 「고전소설의 현재적 독자와 다시 쓰기의 문제 - <춘향전> 을 중심으로」, 『동화와 번역』 9,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05.
- 김나영, 「무속의례 관점에서 본 <두껍전>의 구조와 의미」, 『고소설연구』 19, 한국고소설학회, 2005.
- 김문희, 「고전소설의 환상성의 양상과 인식적 기반」, 『고소설연구』 19, 한국고소설학회, 2005.
- _____, 「<구운몽>의 중층적 담론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 한국고전여

- 성문학회, 2005.
- _____, 「〈숙향전〉의 환상성의 창출양상과 의미」, 『한민족어문학』 47, 한민족어문학회, 2005.
- 김병권, 「〈소대성전〉 창작 원리의 불교사상적 연구」, 『한국문학논총』 41, 한국문학회, 2005.
- _____, 「〈소대성전〉 창작의 수리성명학적 연구」, 『동남어문논집』 19, 동남어문학회, 2005.
- 김성철, 「〈忠烈史傳〉연구 - 구성적 특징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20, 한국고소설학회, 2005.
- 김수연, 「〈六美堂記〉에 삽입된 한시의 양상과 기능」, 『한국고전연구』 11,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 김용범, 「고전소설 〈심청전〉 과의 대비를 통해 본 애니메이션 〈왕후 심청〉 내러티브 분석」, 『한국언어문화』 27, 한국언어문화학회, 2005.
- 김일렬, 「취암본 〈다람쥐〉의 성격과 자료사적 위치」, 『어문논총』 43, 한국문학언어학회, 2005.
- 김재용, 「〈왕능전〉의 영웅소설적 성격과 의미」, 『어문학』 89, 한국어문학회, 2005.
- 김정경, 「〈閨恨錄〉의 구조적 특성과 여성 서술자의 기능 고찰」, 『한국고전연구』 12,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 김종철, 「정전으로서의 〈춘향전〉의 성격」, 『선청어문』 33,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05.
- 김지연, 「〈흔씨양옹쌍링기〉의 단일 갈등 구조와 인물 형상의 관계」, 『민족문학사연구』 28, 민족문학사학회, 2005.
- _____, 「〈운영전〉의 서사구조와 시점연구」, 『새얼어문논집』 17, 새얼어문논집, 2005.
- _____, 「초기 국문 장편소설 〈玉麒麟〉 연구」, 『한국고전연구』 12,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 김지영, 「조선시대 애정소설에 나타난 사랑과 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 김진규, 「〈상운전〉연구」, 『새얼어문논집』 17, 새얼어문학회, 2005.
- 김현주, 「문장체 고소설과 판소리 서사체의 언어조직방식 - <구운몽>과 <열녀춘향수절가>를 중심으로 한 시론적 비교연구」, 『고소설연구』 19, 한국고소설학회, 2005.
- 남은경, 「한, 중 고전문학 속의 여성 이미지 비교 - 〈劍俠圖傳〉의 여성협객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 노영근, 「우에있는 형제이야기의 의미 - 〈장현전〉과 〈목시룽전〉을 중심으로」, 『어문학논총』 24,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5.
- 류준경, 「蓬板 坊刻本 연구」, 『한국문화』 35,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05.
- 민 찬, 「단체 소설 〈용과 용의 대결전〉의 내용 및 형식」, 『어문연구』 48, 어문연구학회, 2005.
- 박영희, 「〈소현성록〉에 나타난 公主婚의 사회적 의미」, 『한국고전연구』 12,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 _____, 「〈설씨이대록〉 연구」, 『한국고전연구』 11,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 박은정, 「〈진대방전〉에 나타난 이념의 위상과 이본 생성 동인」, 『한민족어문학』 47, 한민족어문학회, 2005.
- 박일용, 「〈이생규장전〉의 밀회 장면에서 나타난 환상성과 그 현실적 의미」, 『고소설연구』 20, 한국고소설학회, 2005.
- 박종익, 「乙巳本 〈춘미전〉 연구」, 『어문연구』 47, 어문연구학회, 2005.
- 배연형, 「〈춘향가 말책〉(이용우 필사본)과 해제」, 『한국어문학연구』 44,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5.
- 서경희, 「구여성의 소설 〈고효절록〉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 _____, 「〈소현성록〉의 "석파" 연구」, 『한국고전연구』 12,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 서정민, 「〈삼강명행록〉의 教養書의 성격」, 『고전문학연구』 28, 한국고전문학회, 2005.
- _____, 「〈삼강명행록〉의 창작방식과 그 의미」, 『국제어문』 35, 국제어문학회, 2005.
- _____, 「〈명행정의록〉의 여성형상화 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 _____, 「조선조 한글대하소설의 위상 提高 방식 연구 - 〈명행정의록〉을 중심으로」, 『국문학회』 13, 국문학연구, 2005.
- 서혜은, 「조선소설에 나타난 기녀의 애정 성취 기반과 그 의미」, 『어문논총』 42, 한국문학언어학회, 2005.
- 소인호, 「〈강로전〉 이본연구」, 『우리어문연구』 24, 우리어문학회, 2005.
- 송성욱, 「필사본 〈임화정연〉 72책본 텍스트 연구 - 구활자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36,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05.
- _____, 「고전소설 텍스트 연구 방법론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학논총』 41, 한국문학회, 2005.
- 신은경, 「〈구운몽〉과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의 비교연구 : 불교적 이니시에이션(initiation)의 두 모델」, 『비교문학』 35, 한국비교문학회, 2005.

- 신익철, 자료, 해제 : 새롭게 발굴된 어우야담 40화, 『민족문학사연구』 28, 민족문학사학회, 2005.
- 유광수, 「<옥루몽>에 나타난 性愛 표현의 의미 - 은밀한 폭력과 정당화된 폭력」, 『고소설연구』 20, 한국고소설학회, 2005.
- _____, 「<옥루몽>, 性愛 표현의 서사적 기능과 은폐된 폭력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5.
- 유병환, 「<홍길동전>의 형성배경 - 허균의 행적과 혁명의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20, 한국고소설학회, 2005.
- 윤승준, 「근대계몽기 단형 서사문학과 우언」, 『동양학』 38,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5.
- 윤세순, 「<지봉전>연구 - 17세기 애정전기소설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29, 동방한문학회, 2005.
- 이강옥, 초등학교 고전소설 교육의 의의와 방향」, 『어문학』 88, 한국어문학회, 2005.
- 이금희, 「계모형 소설 연구 - <장화홍련전>과 <김인향전>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9, 한국고소설학회, 2005.
- 이기대, 「<정향전> 한문본의 이본양상과 형성과정」, 『우리어문연구』 24, 우리어문학회, 2005.
- 이문규, 「홍길동의 인물형상으로 본 <홍길동전>의 의미」, 『선청어문』 33, 서울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2005.
- 이승수, 「<虎叱>과 <許生傳>의 독법 하나 - 金聖嘆 서사론의 적용」, 『고소설연구』 20, 한국고소설학회, 2005.
- 이윤경, 「정충신과 관련된 여성인물이야기의 변모양상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20, 한국고소설학회, 2005.
- 이원수, 「<사씨남정기>, 가문의 운명과 규문의 역할」, 『어문학』 90, 한국어문학회, 2005.
- _____, 「남북한 <사씨남정기> 연구의 경과와 전망」, 『한국문학논총』 39, 한국문학회, 2005.
- 이윤석, 「경관 <설인귀전> 형성에 대하여」, 『동남어문논집』, 동남어문학회, 2005.
- 이은봉, 「방각본 <삼국지> 의 변개 양상연구 - “삼국지 권지삼”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20, 한국고소설학회, 2005.
- 이정원, 「<장화홍련전>의 환상성」, 『고소설연구』 20, 한국고소설학회, 2005.
- 이준규, 「<양참의전> 의 서사구조와 그 의미」, 『한문학보』 12, 우리한문학회, 2005.
- 이지영, 「조선시대 대하소설과 淸代의 탄사소설의 비교를 통해 본 여성, 문자, 소설의 상관관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5.
- _____, 「조선후기 대하소설에 나타난 일상 - <완월회맹연>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13, 국문학회, 2005.
- 이지하, 「<위씨절행록>의 여성소설적 성격」, 『고소설연구』 19, 한국고소설학회, 2005.
- _____, 「고전장편소설과 여성의 효의식 - <유효공선행록>과 <옥원재합기연>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5.
- 이헌홍, 「『漢陽』所載 在日韓人文學의 연구 방향과 과제」, 『한국민족문화』 25,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5.
- 이헌홍·정준식, 「近代轉換期小說에 나타난 主奴葛藤의 樣相과 意味」, 『어문학』 88, 한국어문학회, 2005.
- 임수현, 「<지봉전>의 플롯의 역학」, 『한국고전연구』 11,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 임치균, 「『문통』의 기록으로 본 <옥린몽>에 관한 몇 가지 문제」, 『한국고전연구』 11,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 장효현, 「형성기 고전소설의 전개와 우언문학」, 『고소설연구』 20, 한국고소설학회, 2005.
- 전성운, 「16~7세기 연의소설의 인식과 그 변화」, 『고소설연구』 19, 한국고소설학회, 2005.
- 전진아, 「<청백운>의 한문본과 국문본 비교 연구」, 『한국고전연구』 11,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 전성운, 「<구운몽>의 서사 전략과 텍스트 읽기 - 고전 읽기 방법의 재검토 측면에서」, 『문학교육학』 17, 한국문학교육학회, 2005.
- 정명기, 「세책본소설에 대한 새 자료의 성격연구 - <諺文厚生錄> 소재 목록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9, 한국고소설학회, 2005.
- 정병설, 「조선후기 한글소설의 성장과 유통 - 세책과 방각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100, 진단학회, 2005.
- _____, 「18·19세기 일본인의 조선소설 공부와 조선관 - <최충전>과 <임경업전>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35, 서울 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05.
- 정선희, 「<소현성록> 연작의 남성 인물 고찰」, 『한국고전연구』 12,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 정충권, 「<토끼전> 결말의 변이양상과 고소설의 존재 방식」, 『새국어교육』 71, 한국국어교육학회, 2005.
- 정하영, 「<변강쇠가> 성담론의 기능과 의미」, 『고소설연구』 19, 한국고소설학회, 2005.
- 조경은, 「우언글쓰기 전략으로서의 <호질> 읽기」, 『시학과 언어학』 9, 시학과 언어학

어학회, 2005.

조광국, 「閼闕小説의 孝具現樣相에 대한 연구 - 閼闕小説 전개의 한 측면 : <柳孝公善行錄>, <嚴氏孝門淸行錄>, <報恩奇遇錄>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128,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조운형, 「<彩鳳感別曲>의 교육적 성격, 『청람어문교육』 30, 청람어문교육학회, 2005.

조혜란, 「고소설에 나타난 남성 섹슈얼리티의 재현양상, 『고소설연구』 20, 한국고소설학회, 2005.

지연숙, 「<숙향전> 한문본 연구, 『고소설연구』 20, 한국고소설학회, 2005.

_____, 「<주생전>의 배도 연구, 『고전문학연구』 28, 한국고전문학회, 2005.

차충환, 「<화씨팔대록>의 이본과 성격, 『고소설연구』 20, 한국고소설학회, 2005.

최문정, 「<춘향전> 이본전개의 動因과 해학의 이면, 『비교문학』 37, 한국비교문학학회, 2005.

최윤희, 「<육염기>연구, 『고소설연구』 19, 한국고소설학회, 2005.

최호석, 「지송옥과 신구서립, 『고소설연구』 19, 한국고소설학회, 2005.

최혜진, 「판소리계 소설에 나타난 가족의 형상과 그 의미, 『여성문학연구』 13, 한국여성문학학회, 2005.

채연식, 「<주생전>연구, 『한성어문학』 24, 한성대학교 한국어문학부, 2005.

탁원정, 「가정소설에 나타난 ‘집’ 연구 -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을 대상으로, 『한국고전문학연구』 12, 한국고전문학학회, 2005.

하은하, 「<김현감호>에 대한 반응 양상과 자기서사의 특성, 『국어교육』 117, 한국국어교육학회, 2005.

한길연, 「<백계양문선행록>의 작가와 그 주변, 『고전문학연구』 27, 한국고전문학회, 2005.

_____, 「<완월회맹연>의 서사문법과 독서역학, 『한국문화』 36,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05.

홍기정, 「<금수회의록>의 사상적 배경 - 유가 천인합일 사상과의 관련양상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25, 우리어문학회, 2005.

홍성남, 「曹鳳默의 <孔方傳> 연구, 『고소설연구』 20, 한국고소설학회, 2005.

홍순일, 「<홍보가>에 나타난 극적 갈등의 변이와 의미, 『어문연구』 48, 어문연구학회, 2005.

홍혜정, 「삼국지연의에 나타난 기괴미의 양상과 그 수용, 『문창어문논집』 42, 문창어문학회, 2005.

황혜진, 문화적 문식성 교육을 위한 고전소설과 영상변용물의 비교 연구 - <장화홍련전>과 영화 <장화, 홍련>을 대상으로, 『국어교육』 116, 한국어

어학회, 2005.

<자료>

김기창, 『홍길동전』, 종문화사, 2005.

김만중 저, 김주용 역, 『구운몽』, 을유문화사, 2005.

김시습 저, 류수·김주철 공역, 『금오신화에 쓰노라 : 땅위의 자유인, 매월당 김시습의 시와 소설』, 보리, 2005.

김유경 외, 『유충렬전·정비전』, 이회문화사, 2005.

김유경, 『월왕전·김진옥전·김홍전』, 이회문화사, 2005.

김진영 외, 『심청전』, 민속원, 2005.

_____, 『홍보전』, 민속원, 2005.

김장진, 『홍부전』, 종문화사, 2005.

박재연, 김영, 이민숙, 『<홍루몽> 고어사전』, 이회문화사, 2005.

박희병 평점·교주, 『韓國漢文小説 交合句解』, 소명출판, 2005.

부목자, 『조선해학 파수록』, 범우사, 2005.

선문대학교 중반번역문헌연구소, 『재생연전』 상·하, 이회문화사, 2005.

_____, 『녀선외사』 상·하, 이회문화사, 2005.

_____, 『금향정기』, 이회문화사, 2005.

_____, 『충렬협의전』, 이회문화사, 2005.

설성경, 『춘향전』, 책세상, 2005.

옥연자 편, 『옥루몽』1,2,3, 학영사, 2005.

전규태 역, 『계축일기』, 범우사, 2005.

조현설, 『장화홍련전』, 현암사, 2005.

최운식, 『심청전』, 종문화사, 2005.

무악고소설자료연구회 편, 『한국고소설관련자료집(18세기)』 2, 이회문화사, 2005.

한국학중앙연구원, 『하진낭문록』 1-4,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허균 저, 장정룡 역, 『홍길동전』, 동녘출판기획, 2005.

홍종선·백순철, 『연행가』, 신구문화사, 2005.